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회복'

전주 팔복동 산단에 청년 근로자 복합문화센터 건립

22일 건립 위한 건축설계 참가 등록 진행

전주시 팔복동 산단내에 청년 근로자들을 위한 복합문화센터가 들어선다.

전주시는 오는 22일 팔복동 제1산업단지 내에 '제1산단 복합문화센터(가칭 팔복청년예술놀이터)'를 건립하기 위한 건축설계 참가 등록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제1산단 복합문화센터는 오는 2022년까지 총사업비 98억원이 투입돼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된다.

센터 건립은 인근 팔복예술공장과 기능이 중복되지 않고 청년 근로자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확보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1층에는 푸드마켓과 야외 정원, 유리 온실정원 등이, 2층에는 근로자건강센터와 실내다목적체육시설, 북카페 등

이, 3층에는 전주시청 기업지원사무소가 들어설 예정이다.

시는 이번 설계공모 과정에서 전주시 산업의 역사가 담긴 폐공장을 활용해 참신하고 창의적인 디자인을 반영한 우수한 설계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삭막한 산업단지 내에 식물공간을 조성하고 부족한 편의시설을 확보해 팔복동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심사의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

건축설계 참가 등록은 전주시청 중소기업과(안산시 노송광장로 29, 6층)로 직접 방문해 하면 된다. 참가 등록 다음 날인 23일에는 별도 공지된 장소에서 현장 설명이 진행된다. 이후 4월 8일 참가등록자에 한해 설계 작품을 접수한다.

시는 건축 분야 전문가들로 꾸려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4월 14일 건축사들의 공모안 발표와 질의응답, 토론 등을 진행하는 설계공모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모든 심사 과정은 전주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된다.

설계공모 최종 당선작은 4월중 전주시 홈페이지(www.jonju.go.kr)에 공고된다.

시는 당선작을 토대로 약 6개월 간의 설계용역과 각종 행정절차를 거친 뒤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이번 설계공모를 위해 산업단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본구상을 마친 후 공공건축 사전검토, 설계공모 운영 심의, 건축 기획 심의와 일상감사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했다.

/김윤상기자

전주시 완산구, 민생·안전·포용·유연·편의행정 등 구정 운영 5대 기본방향 제시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신계숙)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민접점에서 현장행정을 강화하고, 모두가 잘 살며 희망을 꿈꿀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를 구현해 나가기로 했다.



신계숙 완산구청장

신계숙 완산구청장은 16일 신년브리핑을 통해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회복하는 완산구'를 비전으로 구정 운영을 위한 5대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5대 기본방향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민생행정' ▲재난과 위기에 강한 '안전행정' ▲모두가 잘 살며 희망을 꿈꾸는 '포용행정' ▲시대 변화에 대응하는 '유연행정' ▲구민의 삶의 환경을 개선하는 '편의행정' 등이다.

완산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민생행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소상공인에 대한 각종 지원정책과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사업을 강화하고, 주요 시설사업의 신속집행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착한 선결제 캠페인과 전주사랑상품권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에도 중점을 두는 한편 지방세 징수를 제고를 통한 자주

재원 확보에도 힘쓰기로 했다.

구는 또 '안전행정'을 통해 재난과 위기에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고위험·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철저한 지도점검을 펼치고, 폭염·홍수·폭설 등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재난 취약시설의 경우 안전점검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교량과 도로환경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한 위생관리등급제를 실시하는 등 위생문화에 대한 신뢰성도 높이기로 했다.

또한 구는 모두가 잘 살며 희망을 꿈꿀 수 있는 포용행정에 나서기로 했다. 복지대상자별 맞춤형 급여를 지원해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돕고, 신속·정확한 통합조사와 체계적인 통합관리, 민·관 연계 등을 통해 촘촘한 복지행정망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아동부터 장애인, 다문화가정, 노인 등에 이르기까지 현장 중심의 세심하고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쳐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구는 시대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행정을 추진한다.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한 지방세 환급서비스를 도입하고 지방세 모바일 전자고지를 확대하는 동시에 온라인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환경을 조성하는 등 비대면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김윤상기자

전주시보건소, 무료 치매조기검진·비대면 치매예방교육

전주시가 치매환자 조기 발견 및 관리에 공을 들인다.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는 만 60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지역 내 37개 신경과 및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과 함께 무료 치매조기검진을 하고, 고위험군을 대상으로는 비대면 치매 예방교육을 한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무료 치매조기검진의 경우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만 60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의사의 소견에 따라 선별검사와 진단검사, 감별검사 등을 실시한다. 검진은 1년에 한번 받을 수 있으며, 검진비는 병·의원에 지급된다.

이와 함께 전주시보건소는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자나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받은 치매고위험군 대상자 40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통화 방식의 치매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문화예술교육실무위원회 위원 위촉식

전주시가 지역 내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 시는 16일 팔복예술공장 B동에서 전주시 문화예술교육실무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갖고 첫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전주시 문화예술교육실무위원회는 전주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에 따라 학계 전문가와 문화예술인, 교육계 종사자, 현장 활동가 등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문화예술교육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자문하고, 지역 내 기관·단체 등과 협의·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첫 정기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예술놀이 전주포럼과 팔복야호예술놀이터 운영 등 전주시 문화예술교육 사업 추진방향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지역 내 문화예술지원의 활용 방안과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교육을 발굴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를 했다.

/김윤상기자

향후 시는 매년 2회에 걸친 정례회의와 별도의 수시회의를 개최해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2019년 11월 예술교육도시를 선포한 뒤 지난해 11월 전주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문화예술교육 기반을 조성하는 데 힘써왔다.

지난달 전주문화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진행한 '기초다위 문화예술교육 거점구축 지원사업'에 선정돼 국비 5,900만원을 확보하기도 했다.

서해원 전주시 문화정책과장은 "문화예술교육실무위원회를 통해 지역문화예술교육을 진흥시키고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교육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소중한 문화자산 전주음식 보존·계승

시, 명인 김정옥·명소 성미당·명가 양운철·음식창업소 외할머니솜씨에 인증서 수여

전주시는 16일 전주시청에서 전주음식 명인·명소·명가와 유네스코 음식창의업소로 지정된 대표자에게 인증서를 수여하고 현판을 전달했다.

인증서 수여 대상은 ▲명인 김정옥(유·갑기원, 전주비빔밥) ▲명소 성미당(대표자 고희선, 전주비빔밥) ▲명가 양운철(창식품, 황포묵) ▲유네스코 음식창의업소 외할머니솜씨(대표자 박민자, 생화탕·팔빙수) 등이다.

전주음식 명인으로 지정된 김정옥씨는 1988년부터 팔복동에서 갑기원(갑기회관)을 운영하면서 30년 넘게 전주비빔밥을 전통을 지켜왔다. 또 고추장과 약용비빔밥 개발 등 끊임없는 연구와 현장 교육을 통해 비빔밥의 발전·보급을 위해 힘써왔다.

전주음식 명소 성미당은 1965년 중앙동에 처음 문을 연 이래 3대에 걸쳐 50여 년 동안 역사와 전통을 지켜온 전주의 대표 비빔밥 업소다. 현재 3대 고희선 대표가 어머니인 정영숙 씨와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그간 많은 유명인사가 다녀가고 언론에 소개되는 등 전주비빔밥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전주음식 명가 인증서를 받은 양운철 씨는 전주비빔밥에 빠져서는 안 되는 황포묵을 4대째, 130년에 걸쳐 만들어온 가문 내림음식의 전



전주시는 16일 전주시청에서 전주음식 명인·명소·명가와 유네스코 음식창의업소로 지정된 대표자에게 인증서를 수여하고 현판을 전달했다.

수이다. 현재 창식품을 운영하며 아버지 양석대 씨(3대)와 곳곳하게 전통방식을 고수하며 유명 전주비빔밥 업소에 황포묵을 제공하며 전통의 맛을 지켜오고 있다.

유네스코 음식창의업소로 지정된 '외할머니솜씨'는 박민자 씨가 2010년부터 한옥마을에서 운영 중인 한국식 디지털 카페다. 대표 메뉴는 집안에서 내려오는 비빔으로 만든 생화탕과 흑임자 팔빙수로, 한옥마을 내 남녀노소 모두에게 인기 있는 업소로 꼽히고 있다.

시는 지난해 12월 '2020 전주음식 명인·명소·명가·유네스코 음식

창의업소'를 지정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여식을 미루다가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자 이날 인증서를 줬다.

최라기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전주의 소중한 문화자산인 전주음식 명인·명소·명가·음식창의업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전주음식의 우수성과 역사성, 전통성을 보존하고 계승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세계적인 음식의 고장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7)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